

# “자연 살아숨쉬는 ‘무안갯벌’서 도심 스트레스 날려요”

오토캠핑장·캐러반 사이트 조성  
황토이글루·방갈로 등 편의시설

무안황토갯벌축제 오는 6월 개막  
갯벌씨름·생태탐방 등 행사 마련

전남 무안갯벌은 넓고 비옥하다. 황토를 머금은 갯벌은 언뜻언뜻 붉은 빛이다. 침식된 황토와 사구의 영향으로 형성된 무안갯벌은 2001년 ‘습지보호지역 1호’에 이름을 올렸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랍사르 습지(1732호)와 갯벌도립공원 1호로도 지정됐다. 무안갯벌의 대표 공간은 해제반도가 칠산 바다를 품어 안은 함평만(함해만) 일대다.

무안갯벌의 중심인 해제면에는 생태갯벌을 테마로 한 ‘무안황토갯벌랜드’가 있다. 생태갯벌과학관에서는 갯벌 1㎡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무안갯벌 위로 이어진 탐방로와 갯벌체험 학습장에서 다양한 갯벌 생물과 만날 수 있다. 올해는 갯벌해설사가 들려주는 ‘도란도란 갯벌이야기’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해 재미가 가미된 콘텐츠도 선보인다.

### ◆체류형 관광지 날개를 달다

캠핑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오토캠핑장의 수용규모를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캠핑존에서 직접 텐트를 치고 숙박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과, 캐러반 사이트가 조성되었고 일반 휴양객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펜션형 숙박시설을 갖췄다.

탁트인 전경과 드넓은 갯벌과 바다를



국민여가캠핑장(위부터 시계방향)과 무안황토갯벌축제 갯벌체험, 밀리터리테마파크.

바라보며 낭만적인 캠핑의 즐거움을 더한다. 캠핑장은 잔디사이트와 데크사이트로 구분된다.

기호에 맞는 이용이 가능해 캠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캠핑장 내 화장실과 샤워실, 음수대, 실내바비큐장 등의 시설은 캠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황토음악(3동), 황토이글루(9동), 방갈로(5동), 캐러반(14대) 등도 운영하고 있다.

움막과 이글루는 게르마늄이 함유된 지역 천혜의 자원인 황토와 치유 효능이 있는 피톤치드를 방출하는 편백나무를 활용해 관광객들의 건강까지 생각했다. 가격 경쟁력도 있어 주말이용은 서두르지 않으면 예약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 ◆여유에 볼거리를 더하다

숙박이 끝나고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은 생태갯벌과학관에서 실내 체험프로그램(13종)을, 또는 갯벌체험학습장에서 갯벌체험을 할 수 있어 어린 자녀

를 둔 부모들에게 호응이 좋다.

더욱이 4월~10월까지 주말을 이용한 감성캠핑이 진행된다. 마술쇼와 버블쇼,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무더운 여름철 레크리에이션과 연계한 물놀이장을 운영해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봄철부터 본격 유입되는 관광수요 대응차원 키보드 등을 비치해 놀거리 확충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체험 외에도 찜질방, 분재전시관, 힐링카페로 이어지는 동선은 추천할만한 코스 중 하나다.

바다와 갯벌의 멋이 커피 한잔의 여유와 함께 하는 힐링카페가 생태갯벌과학관 2층에 있다. 탁트인 전망과 캠핑장을 옮겨 놓은 듯한 인테리어가 만나 탈 일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처럼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올 여름 영광과 무안을 잇는 칠산대교 개통과 맞물려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안군

역과 해안선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영산강을 축으로 하는 영산강변 관광벨트 구축이다.

영산강을 대표하는 정자 중 하나인 몽탄면 이산리에 있는 식영정을 비롯해 몽탄면 용기마을과 분청사기 도요지 등이 영산강을 따라 산재해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를 바닷길을 통해 운반했던 석정포구를 비롯해 한반도의 지형을 닮은 경관이 빼어나 영산강 8경중 2경인 느리지가 있다.

###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준비

무안군은 탄도만권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안관광도로 조성으로 망운면 송현, 목서리 일원에 노을길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서남권 해안관광거점을 구축하고 노을길 주변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하는 전망대 조성과 기초성 되어 있는 낙지공원 및 외덕 해안공원 등을 정비·활용함으로써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계획이다.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는 2020년 12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군대 역사를 한 눈에

무안 출신 옥만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재를 들여 폐교 대지에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용기, 세계 항공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탱크와 비행기를 조종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체험장, 무기전시장, 스크린 사격장, 적성물자전시실, 유격 훈련 체험장을 갖췄다.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무안황토갯벌축제

세계 5대 연안습지 무안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 하고 축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오는 6월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존 9월에 개최됐던 축제를 3달 앞당겨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리는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행사, 갯벌씨름, 올림피아드, 갯길생태탐방, 소망등날리기 등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향토 음식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농수축산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황토갯벌랜드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표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무안군 관광벨트 축은 크게 영산강권

## 인천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관내 어업인들이 출어 시 해난사고 예방 및 안전 조업을 위하여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어촌지역을 전문수리업체가 어촌계 항·포구를 방문해 어선과 어업용기자재에 대해 무상점검 및 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소규모 부품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올해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화군 서도면



인천시가 4월 8일부터 도서·벽지 어업인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인천시

을 시작으로 관내 26개 어촌계의 어선 700여척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및 부품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광주시, 도시재생 현장 전문인력 양성

청년코디네이터 등 3개 프로 운영  
10일부터 접수, 내달부터 시범진행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동체센터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교육 실무네트워크를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도시재생교육 실무네트워크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맞춤형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동체센터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 청년코디네이터 양성’, ‘도시재생 사회공헌 활동가 양

성’, ‘제5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대학’ 등 3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재생 청년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도시재생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0일부터 26일까지 접수 받아 5월부터 4개월 간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과정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 강의, 디자인 씽킹으로 이뤄진 실습, 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장 실무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전남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퇴 중장년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회공헌 활동가 양성과정’

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문화 재교육을 실시, 전문성을 키우고 도시재생 분야의 활동 토대를 구축한다.

과정은 도시재생 이론,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실습 등을 구성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도시재생 점검이 이뤄진다.

이 과정은 교육 실효성과 후속효과를 위해 광주평생교육진흥원(1500만원)과 협력해 은퇴 중장년 20여 명을 모집하고 7월부터 2개월 간 운영한다.

‘제5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대학’은 광주도시공사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지역 자생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 조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오늘의 날씨

4월 8일 (월)

음력: 3월 4일

수도권 날씨

7 ~ 16°C

해돋이 / 06:08 | 해질 / 19:0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확대

광주광역시는 거동불편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최근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애인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전동보장구를 타고 외출에 나섰다 배터리가 방전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24곳 이외 60곳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전동보장구 이

용 시 충전기가 방전됐는데도 충전소를 쉽게 찾지 못하거나 각종 방해물 때문에 충전하지 못하는 등 충전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용 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애인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